"성의없는 정부에 뿔났다" 자력으로 미술관 개관

'걸어다니는 미술사전' 金達鎭관장 홍지동에 건물 매입

"현재까지 주로 자료를 모으기에 주력했지만 지금부터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리한 작가 250여명의 스크랩 자료들을 디지털화해 널리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걸어다니는 미술사전'이란 별명이 붙은 우리나라 독보적인 미술자료 수집가이자 역사의 증인인 金達鎭미술자료박물관장(60)이 자력으로 2015년 3월 서울 종로구 홍지동 지상3층 지하1층의 건물을 매입,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미술자료 전문박물관을 개관했다.

金관장은 "무리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미술자료를 방치할 수 없잖아요. 이제 남은것은 활용이니까 그동안 모은돈에다 은행융자를 받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건축가 김원 광장건축환경연구소장이 낡은 사옥에 재능기부로 리모델링해 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어요." 개관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세한 고충은 입을 다물었다.

그동안 전·월세를 전전하며 자료를 보관하는데도 벅찬 시기를 거쳐 4년전 홍대입구에 정부지원으로 운영해온 한국미술정보센터마저 지난해 9월 그나마 지원이 중단돼 문을 닫으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력과 외곬의 신념은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새로 단장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아카이브 스토리 : 김달진과 미술자료전'이 이곳에서 열렸다. 그동안 축적한 근·현대미술자료와 아카이브 자료를 총체적으로 선보였다. 1층 전시실에는 단행본과 화집, 정기간행물, 팜플릿, 작품 등 중요 소장품 250여점을 전시했다.

▲金達鎭미술자료박물관장이 정부지원없이 자력으로 건물을 매입해 개관한 서울 종로구 홍지동의 미술관 건물. 원안은 金達鎭미술자료박물관장

金관장의 미술자료수집은 45년전인 고등학교 시절부터다. 미술관 고용인으로 시작해 천가방을 메고 화랑전시장, 신문사 문화부 등 자료가 있을만한 곳이면 어김없이 찾아 자료를 수집해 짊어지고 다닌 무리한 탓으로 골병이 들어 4년전 척추수술을 받았을 정도다. 자료만도 줄잡아 25톤. 보관과 전시를 위해 2001년 종로구 평창동에 김달진 미술연구소를 개설한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셋방을 전전하며 자료를 소중히 보관 전시해왔다.

그러는동안 서울아트가이드(2002)의 창간, 미술정보포털 오픈, 대한민국 미술인명록(2010)발간, 한국미술자료집 발행 등의 자료를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 2만여점의 자료를 기증하기도 했다.

그의 소장품에는 경탄할 값진 자료가 산더미 같다. 근·현대 희귀도서와 미술잡지 창간호도 눈길을 끈다. 구한말 조선아이들의 놀이와 풍속을 다룬 책 '조선아동화담(朝鮮兒童畵談 = 1891)에는 당시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묘사한 기산(箕山) 김준근의 컬러 삽화 10점이 수록됐다. 1918년 민족서화가 13명이 결성한 국내 첫 민간미술단체 '서화협회'에서 1921년 발간한 '서화협회보', 1961년 창설된 앙가주망 동인회의 활동을 기록한 '앙가주망 활동일지',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이 유준상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에게 1989년에 보낸 연하장 등이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金관장이 쌓아온 미술자료는 말 그대로 '빅데이터'다. 반세기 미술현장의 데이터가 그의 자료실에 빠짐없이 소장돼 있다.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을 펴내기까지는 27년의 세월이 걸렸다. 활발하게 활동했던 창작 미술인들 뿐만이 아니라 미술사가 큐레이터, 작품보증 전문가 등 비(非)창작 미술인들까지 5천여명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다. 신문기사에 이름한줄 못 올렸던 이름없는 미술가들의 생몰연대까지 기록돼 있을 정도다.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정부도 등한시 한 일을 한개인이 그저 좋아서 해 왔다. 그런데 잘 안팔린다. 딱딱하고 재미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방대한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먼지만 쌓이고 활용이 안되고 있다." 물질만능의 시대를 그는 굳이 원망하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면 빛은 반드시 비칠 것이다. 하지만 다행한 것은 아들 度炫씨(28)가 예술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아버지 일을 돕겠다며 승계하고 나섰다. 현재는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이 자료만은 장차 길이 빛날 우리나라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각광을 받게될 것이다.

金達鎭관장은 시조 의성군(義城君 諱 錫)의 33世이며 개성부사공(開城府事公 諱 龍珠) 후 문민공(文敏公 諱 南寶)의 5代손 참의공(參議公 諱 貴)파이다. 고향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 미동리.

관람을 요하는 종친은 02)730-6227.